인쇄하기 페이지 1/2



HOME >

포항, 기업의 선순환 투자 구조 주춧돌 놓다

○ 이진수기자 | ② 승인 2020.08.26

시, 포항 공장 건립투자 8개 기업과 MOU 체결에이엔폴리 등 바이오·IT 기업들 451억 투자성장기업 다수 수도권 이전 불구 재투자해 '눈길' 선순환 투자로 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6일 포항시와 8개 기업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8개사는 오는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451억 원을 투자카로 했다.

지역에서 출발한 기업이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의 선순환 투자 구조가 포항에서 선보였다.

포항시는 26일 포항에 공장 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만6848㎡ 부지에 4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기업 가운데 에이엔폴리, 원소프트다임, 바이오컴, 이너센서, 이

인쇄하기 페이지 2/2

브이에스, 휴비즈아이씨티, 아이언박스 등 7개사는 포스텍, 포항테크 노파크 등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강소기업으 로 성장했다. 화이바이오메드는 서울 소재 기업이다.

에이엔폴리는 나노바이오 소재를, 이너센서는 반도체 센서를 생산하는 등 대부분 바이오, 정보통신(IT), 첨단 신소재 분야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건립 단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키로 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포항에서 출발한 기업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기업의 선순 환 투자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제품 양산 또는 사업 확장 단계에서 마케팅과 기업의 자금유치가 비교적 용이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은 포항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자신이 출발하고 성장한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의 선순환 투자 구조를 보여준 것으로 포항이 타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향후기업의 투자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타 지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 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에서 출발한 기업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기업이 포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이진수기자